

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외모에 대한 태도가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Attitude toward Appearance on Clothing Attitude of High School Students

이은희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전공

Lee, Eun He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needs, self-consciousness, self-esteem),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clothing attitude of high school students. Method of posing a questionnaire was adopted to obtain stochastic data required for pertinent analysis. This is the investigation of which 489(male 236, female 253) high school students located in Chungnam and Jeollabukdo province. In this statistical analysis, SPSS 10.0 for Windows Program was utilized to calculate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lso, these materials were verified by factor analysis, t-te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The results of analysing the factors to the response attitude toward appearance emerged three factors(conformity · value · needs toward appearance). Gender had the significant effects on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ttitude toward appearance and clothing attitude of high school student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ttitude toward appearance of high school students had an effects on clothing attitude, i.e. gender attractiveness, fashion pursuit, self-expression, aesthetic, and modesty.

Key words :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ttitude toward appearance, clothing attitude

I. 서론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 전달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외모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외모 기준 또한 점차 서구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외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갑작스러운 신체적 변화로 인해 심리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며 불안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urlock, 1978). 성인으로서의 완전한 외모를 갖추기 시작한 청소년들은 외모를 통해 집단의 승인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다(고애란, 김양진, 1996; 이명희, 이은실, 2000; 이인자, 이경희, 신효정, 2001). 따라서 외모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기에 사춘기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야 한다(임숙자, 이미현, 이승희, 신효정 역, 2000). 또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를 사회와 연결시켜 객관적으로 비판하게 되므로 타인의 인정과 호감을 얻기 위해 의복을 착용하고자 한다(조선명, 1999). 이러한 특

Corresponding author : Lee, Eun Hee
Tel. : 042) 284-7761
E-mail : leh1967@hanmail.net

성은 과거에 비해 물질적 풍요와 부모의 허용적인 양육태도로 인해 높은 구매력과 충동적인 성향을 보이며 성장한 요즈음의 청소년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차은정, 박혜선, 2000).

MacGillivray와 Wilson(1997)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 의복착용은 의복과 외모에 대한 만족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김양진과 강혜원(1996)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은 자신의 외모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신체의 결함이나 불만감을 극복하기 위해 의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외모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은 기분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어 의복을 잘 입었다고 느낄 때는 더 자신감이 있고 적극적이 되나, 적당하지 못한 의복을 입었을 때는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심정은, 고애란, 1997).

이러한 청소년의 외모에 대한 태도는 자의식과 같은 심리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의식이 높은 청소년이 의복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Miller, Davis & Rowold, 1982; 고애란, 김양진, 1996), 매스미디어의 확산과 사회적 비교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외모는 자아존중감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김양진, 강혜원, 1996; Rudd & Lennon, 2000; Rudd & Lennon, 2001). 또한 심리적 특성과 외모에 대한 관심의 증가 및 사회적 비교는 나아가 의복에 대한 관심과 행동 등을 증가시켜 의복을 자신에 대한 상징과 평가의 요소로 지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복착용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거나 인정받으려는 태도를 갖게 된다(박성연, 이종미, 임숙자, 2001).

이와 같은 청소년기의 특성은 특히 고등학생 시기에 많이 나타났다. 조선명과 고애란(2001)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외모와 관련되어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으며,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최고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애란과 김양진(1996)의 연구에서는 외모/인기가 고등학생이 가장 높았으며, 고애란, 진병호 그리고 심정은(2000)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이 다른 연령층보다 자신의 체형을 가장 많이 의식하고 있었고, 의복행동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특성인 자아중심성은 고등학생 시기에 최고조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김양진과 강혜원(1996)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가 높아도 외모와 의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면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낮았다고 하였다. 이것은 청소년기의 외모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었고, 또한 의복으로서 부정적인 신체적 자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발달과정에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있는 남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욕구, 자의식,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과 외모에 대한 태도가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청소년기 의복태도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욕구, 자의식, 자아존중감)과 외모에 대한 태도, 의복태도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 둘째, 고등학생들의 심리적 특성과 외모에 대한 태도가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청소년기는 일반적으로 성호르몬의 분비와 심리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11~12세부터 시작해서 추상적 사고능력과 자아정체감 형성이 이루어지는 18~20세까지의 연령층으로 이 시기에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자아개념의 정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정서적으로 불안정을 느끼게 된다. 청소년기에서 고등학생 시기는 대부분 후기에 속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고등학생들이 속한 청소년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심리적 특성, 외모에 대한 태도, 의복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심리적 특성

1) 욕구

인간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의 문제

를 해결해주는 동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욕구(need)이다. 욕구이론은 인본주의 심리학의 대표인 Murray와 동기화의 과정으로 욕구를 이론화한 Maslow의 이론으로 구분된다(강혜원, 1999).

욕구와 행동과의 관계에서 Murray는 성격의 가장 기본적이 일차적 변인은 동기특성이며, 이 동기특성 중에서 가장 원천적인 것이 인간의 욕구라고 규정하였다(황정규, 1968). 또한 Murry(1934)는 욕구에 대해 '지각, 통제, 의복, 행위 등의 일반적 행동을 통합하여 현존하는 불만족 상태를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변형시켜 해소시키는 힘으로 두뇌에 존재하는 가설적인 구조'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그 힘은 내적·외적으로 충동된 힘으로서 다른 심리적 과정을 조직한다'라고 하였다(이훈구 역, 1983; 심소연, 강혜원, 1983). 결과적으로 개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각 단계별로 다른 욕구를 가지게 되고 그 욕구가 실현되지 못할 때 갈등을 일으키게 되므로 인간행동은 결국 갈등을 해소시키는 영속적 과정이라 볼 수 있다. Murray는 심리 발생적 욕구로 성취·친애·지배·과시·굴욕, 회피·양호·질서·유희·성·구호 욕구를 들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취·지배·과시 욕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성취욕구는 남보다 어려운 일을 성취하려는 것으로, 무엇인가 어려운 일을 성취하고, 다른 사람을 능가하며 경쟁하려는 욕구이다. 지배욕구는 인간이나 환경을 지배하려는 것으로, 인간의 환경을 통제하며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지시하거나 영향을 주는 욕구를 의미한다. 또한 과시욕구는 남에게 인상이 남도록 하는 것, 남의 주의를 끌려는 것, 남을 흥분시키고 즐겁게 하고 놀라게 해주려는 욕구이다. 이 욕구에서 나타나는 감정은 허영과 화려함 및 자신감이다(문화자, 1985; 심소연, 강혜원, 1983; 강혜원, 1999).

청소년기는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인 의복에 대한 흥미와 욕구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다(이인자, 이경희, 신효정, 2001).

욕구와 의복과의 관계를 연구한 Humphrey 등(1971)은 남녀 고등학생 모두 자기 존중감이 높은 학생이 의복의 심미성을 중요시하였으며, 성취욕구가 의복의 개성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Ryan(1966)은 성취욕구에서 의복의 편안함에 중점을 두는 사람은 자기 통제적이고 사교적이며,

권위에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의복의 동조성에 중점을 두는 사람은 성실하며 도덕적이고 사교적, 전통적이며 복종적인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Murray(1934)는 과시욕구를 남의 주의를 끌어 인상에 남게 하려는 자기 선전적인 욕구라 정의하고, 과시욕구가 많은 사람은 비인습적인 의복이나 색상이 화려한 의복을 착용하여 남의 눈을 끄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의복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는 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욕구이다. Flügel(1971)은 인간의 외모에 대한 자기만족은 나체의 과시와 그 힘을 보여주려는 자연적 표현이며,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해 경탄하고 과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McJmsey(1973)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욕구는 의복을 통하여 충족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Hurlock(1929)은 과시의 수단으로 의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자(1985)의 연구에서는 과시·성·친애·성취·굴종·지배·공격·情動·자율 욕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과시욕구가 높게 나타난 것은 여고생들이 개방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사회적 승인을 얻어 자기를 주장하고 싶어하고 이성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욕구와 의복변인과의 관계에서 과시욕구는 의복의 개성표현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의복의 편안성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심소연과 강혜원(1983)의 연구에서는 과시욕구가 높은 여고생들이 유행에 대한 관심도 높게 나타났다.

2) 자의식

자의의식(consciousness)은 내부나 외부로 향하는 관심의 일관된 성향을 말하며, 사적 자의의식(private self-consciousness)과 공적 자의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의 두 영역으로 구성된다. 사적 자의의식은 자신에 대한 동기와 목표에 대해 반성적이며 내적 감정과 공상 등에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공적 자의의식은 자신을 타인의 관찰대상이 되는 사회적 객체로 보고 의복착용, 태도 등에 관심을 갖는 특성을 의미한다. 개인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려는 인간의 성향을 기반으로 Fenigstein, Sheier와

Buss(1975)에 의해 자의식 척도(self-consciousness scale)가 개발되었으며, 이 척도의 실행과정에서 세 가지 하위요인 즉 사적 자의식, 공적 자의식, 사회적 불안감(social anxiety)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냈다(이부희, 1995; Kwon, 1991; Kwon, & Shim, 1999).

신영주(1998)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자의식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의식 중 특히 사적 자의식이 고등학생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고애란, 김양진, 1996; 이부희, 1995; 김희창, 1998). 양은주(1993)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적 자의식이 높게 나타난 데 비해, 이부희(1995)와 고애란, 김양진(1996)의 연구에서는 공적·사적 자의식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의식을 연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적 자의식(Miller et al., 1982; Solmon & Schopler, 1982)과 사적 자의식(Kwon, 1991)이 다양한 의복사용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아의 공적 측면과 관계된 외모를 통한 개인의 의복사용이 자아를 반영하며 자아표현에 의복이 관련된다고 하였다(Miller et al., 1982; Kwon & Phrham, 1994). 심정은과 고애란(1997)의 연구에 의하면, 자의식 중 공적 자의식은 의복태도 중 의복착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인을 의식하는 사람은 의복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 의복을 착용한다고 하였다. 고애란과 김양진(1996)은 사적 자의식은 심리적 의존성에, 공적 자의식은 과시, 타인 위주의 의복착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고애란과 심정은(1997)의 연구에서도 공적 자의식은 자기 위주의 의복착용과 심리적 의존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Rosenberg(1979)는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하나의 특별한 객체인 자아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정의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자아개념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아개념보다는 한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개념이다(강혜원, 1999).

현대사회는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어떤 이미지를 강요받거나, 강제적으로 비교를 당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

으며, 의복을 포함한 외모는 말초적이고 시각적인 것이어서 사회적 비교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Lee, 1997; 송경자, 김재숙, 1999). 즉, 매스미디어나 준거집단을 통해 외모를 비교하게 되고, 이것은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되어 외모향상 및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의복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심정은, 고애란, 1997).

의복은 개인의 심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의복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구와 윤학자(1986)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사회적인 승인에 대한 의존도가 적으며, 옷을 아름답게 입고 경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고생의 경우 의복 착용 동기로 심미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동조성이나 심리적 의존성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순구, 윤학자, 1986; 김순구, 박정순, 1990).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남자 고등학생이 여고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김순구, 박정순, 1990; 심정은, 고애란, 1997). 이것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외모와 관련이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의복을 통해 자신을 보다 향상시키고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확신과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의복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외모에 대한 태도

외모는 타인에 관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며, 사회발달과정에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즉, 외모는 사회적 고정관념의 유력한 원천이며, 한 개인의 신체적 매력은 타인에 의해 사회적 평가의 기초로써 사용되는 사회적 단서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되며, 신체의 건강 여부, 결합의 유무와 신체적 우열 등 신체 외모는 지적, 정서적, 사회적 모든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외모가 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매력적인 외모를 위한 외모 관리 형태가 의복태도와 관련지어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타인의 반응을 고려한 의복으로 자신의 신체 매력을 과시하려는 행동을 하게 된다. Lennon, Rudd, Sloan, & Kim 등(1999)은 외모에 대한 자신과 타인의 평가가 부정적일 때 개개인은 사회적 미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전략을 구상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외모는 신체이미지와 착용된 의복의 특성에 의해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신체와 의복에 의해 구성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Horn, & Gural, 1981; 심정은, 고애란, 1997).

Ryan(1966)도 청소년기는 용모에 관심이 많고,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의복과 외모로써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의복과 외모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기성세대와는 구분되는 그들 특유의 패션과 음악, 영화, 카페 등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며, 가족이나 또래 집단은 물론 다양한 대중매체의 노출을 통한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자기 정체감과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해 간다. 이러한 청소년의 자기정체감은 높은 의복관심과 또래집단의 의복동조, 연예인에 대한 외모 모방과 유행에의 몰입 등과 같은 특징적인 행동을 통해 형성되어간다(이인자, 이경희, 신효정, 2001). Thompson 등(1999)은 점점 날씬해져가는 사회적 외모이상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되고 촉진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10대 소녀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이 좀더 자기 외모를 의식하고 외모관리에 신경을 쓴다고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로 인하여 외모를 변화시켜 불안감을 보완하려는 경향이 있다. 조선명과 고애란(2001)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여고생들은 매스미디어에 비취지는 이상적인 외모와 사회적 비교를 하며 심각한 불만족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외모를 아끼고 올바르게 관리하는 행동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기에서도 특히 고등학생시기에 매스미디어에 가장 영향을 받고 있었고, 매스미디어에 나타나는 이상적인 외모를 통해 사회적 외모기준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며 이러한 태도는 고등학생 시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조선명, 고애란, 2001).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적지 않은 시간을 대중매체에 노출되고 있고, 보통 사람들보다 마른 신체를 가진 연예인이 상적인 외모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정은, 1997; 조선명, 고애란, 2001).

하지만 최윤정과 김미숙(1999)의 연구에서는 여고생들은 헤어스타일이나 의복스타일에서 연예인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과 자신들을 동일화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실제로 구매동기는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조선명(1999)은 청소년기 여학생은 신체적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 열중, 중요성이 커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교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과 열중, 중요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의복을 통해 이상적인 외모를 나타내고자 한다고 하였다.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한 평가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이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거나(Creekmore, 1974; Cash, Winstead & Janda, 1986; 구정화, 1994), 덜 매력적이라고 지각하였다(심정은, 고애란, 1997). 그 이유로 Freeman(1984)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여학생들은 남학생보다 문화적 이상을 성취하는데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전영신과 한명숙(2000)의 연구에서도 여고생들은 실제적 자기 이미지와 이상적 자기 이미지간에 차이가 나타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불만도 커진다고 하였다.

또한 이 시기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이성에게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원하고, 자신의 외모나 행동에 관해 관심이 많아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정도로 자신의 외모나 행동을 인지한다고 느낀다. 따라서 이시기는 눈에 보이거나 직접 느낄 수 있는 의복, 신체적 외모, 혹은 매너로써 집단의 인정을 받으려 하며, 이러한 요인이 의복에 대한 관심을 어느 시기보다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또래집단 및 타인의 인정과 수용을 위한 유행의복을 선택하여 구입하게 된다.

남녀 고등학생들은 외모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 개념 변인 중 신체적 자아개념이 높고, 가정적·사

회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의복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복관심도 하위변인 중 외모에 대한 관심은 여고생이 남자 고등학생보다 높았다(이상희, 김현식, 손원교, 1997).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고등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동기와 목표 및 내적 감정의 표현으로 자기 위주로 의복을 착용하거나 의복을 기분전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과, 또한 사회적 상호관계의 증가로 인하여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며, 외모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게 되어 타인을 의식한 의복착용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외모는 사회적 상황을 알려주는 비교기준이 되며 의복은 사회문화적으로 공유된 의미를 내포하는 외모의 부분으로 개인의 외모에 대한 평가는 의복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3. 고등학생의 의복태도

의복태도는 의복의 태도, 습관, 착용 행동을 뜻하며, 의복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응하려는 일반적인 경향으로 의복행동의 하위개념이다. 즉, 개인의 일반적인 의복착용 행동을 의복태도라 칭하고, 의복행동은 의복태도의 상위차원으로서 폭넓은 의복변인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이은실, 이명희, 1998).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자(1985)의 연구에서는 정숙성, 관리성, 개성표현, 편안성, 동조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연수(1985)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의존성, 정숙성, 심미성, 편이성, 주의집중성, 그리고 사회적 의존성 변인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고생은 주의집중성, 정숙성, 심미성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인 반면, 남녀공학에 다니는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구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정숙성, 심리적 의존성 순으로 나타났다. 양인숙(1991)의 연구에서는 여고생들은 다른 어느 시기보다 가장 정서가 불안정하고 외모나 의복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며 유행을 중요시한다고 하였다. 오종은(1995)은 여고생들은 또래집단에 속한 사람들과 같은 유행에 동조하면서 직접적인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김경희(1996)는 여고생들이 개방적이고 활동적이며 유행에 민감한

특성을 보이며 상품구입 시 유행을 고려한다고 하였다.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미경(1997)의 연구에서도 유행에 민감하여 전체 20%만이 유행에 뒤쳐지는 옷을 상관하지 않고 입는다고 하였다. 이상희, 김현식, 손원교(1997)의 연구에서 의복관심도 하위변인 중 동조성을 제외한 외모에 대한 관심, 개성, 유행, 상표지향성 모두 여고생이 남자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심정은과 고애란(1997)은 여고생이 남자 고등학생에 비해 의복에 관심이 많고 타인을 의식하며 의복을 과시적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내적인 심리상태를 반영하는 정도가 크며, 심리적으로 의복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최운정과 김미숙(1999)의 연구에서는 여고생들은 유행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이고 또한 필요해서보다 마음에 드는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구매심리를 자극하였고, 의복구매 시 합리적, 실용성에 입각한 구매보다는 외형적인 매력에 의해 의복을 구매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고생들이 의복을 선택할 때 유행과 외형적인 면에만 치우친 나머지 학생의 신분을 잊고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백선영과 이선재(2000)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여고생이 남자고등학생 보다 유행이나 흥미로운 관심, 실용적 위험지각이 높게 나타나 여학생들이 유행이나 옷에 대한 관심과 흥미 등이 높으면서도 동시에 실용적인 의복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연, 이종미 그리고 임숙자(2001)의 연구에서는 동조성을 제외한 심미성, 정숙성, 심리적 안정성, 과시성, 의복 관심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즉, 여고생이 남자 고등학생에 비해 보다 의복의 미적인 면과 단정한 면을 중요시하며 의복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구와 관심을 높다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에

소재한 4개교의 남녀고등학생을 임의 추출하였다. 조사 시기는 2002년 11월 중에 실시되었다. 회수된 총 500부의 설문지 중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489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분포는 여고생이 253명으로 51.7%, 남고등학생이 236명으로 48.3%이었다. 부모의 학력은 고졸인 경우가 각각 45.8%, 49.1%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직업은 농업 및 생산직이 156명(3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취업주부가 249명(50.9%)으로 전업주부 240명(49.1%)보다 조금 많았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중류층이 427명(87.3%)으로 현저히 높았고,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37명(48.5%)으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 구 분 | | n | % | |
|--------------|-------------|---------|-------|------|
| 성별 | 남 | 236 | 48.3 | |
| | 녀 | 253 | 51.7 | |
| 부모학력 | 부 | 중졸 이하 | 136 | 27.8 |
| | | 고졸 | 224 | 45.8 |
| | | 전문대졸 이상 | 129 | 26.4 |
| | 모 | 중졸 이하 | 193 | 39.4 |
| | | 고졸 | 240 | 49.1 |
| | | 전문대졸 이상 | 56 | 11.5 |
| 부모직업 | 부 | 농업, 생산직 | 156 | 31.9 |
| | | 전문직 | 40 | 8.2 |
| | | 행정관리직 | 10 | 2.0 |
| | | 사무직 | 118 | 24.1 |
| | | 서비스직 | 21 | 4.3 |
| | | 판매직 | 62 | 12.7 |
| | | 기술직 | 71 | 14.5 |
| | | 무직, 기타 | 11 | 2.2 |
| | 모 | 취업주부 | 249 | 50.9 |
| | | 전업주부 | 240 | 49.1 |
|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 상 | 12 | 2.5 | |
| | 중 | 427 | 87.3 | |
| | 하 | 50 | 10.2 | |
| 가정의 월평균 수입 | 100만원 미만 | 88 | 18.0 | |
| | 100만원-200만원 | 237 | 48.5 | |
| | 미만 | 237 | 48.5 | |
| | 200만원 이상 | 164 | 33.5 | |
| 합계 | | 489 | 100.0 | |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이 심리적 특성(욕구, 자의식, 자아존중감), 외모에 대한 태도, 의복태도로 구성되었다. 모든 설문문항은 5점 Likert 형 척도로 측정하였다.

1) 심리적 특성

욕구는 성취·지배·과시 욕구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성취욕구는 남보다 어려운 일을 성취하려는 욕구이며, 지배욕구는 인간이나 환경을 지배하려는 욕구이다. 또한 과시욕구는 남에게 인상이 남도록 하는 욕구이다(문화자, 1985). 본 연구에 사용된 욕구 측정검사는 Murray의 욕구이론을 기초로 하여 황정규(1968)가 제작한 욕구 진단 검사 문항 중에서 성취·지배·과시 욕구에 해당되는 문항중에서 본 연구에 맞게 각 5문항씩 선택하여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성취·지배·과시욕구 각각 $\alpha=.71$, $\alpha=.74$, $\alpha=.78$ 이었다.

자의식 중 사적 자의식은 자신에 대한 동기와 목표에 대해 반성적이며 내적 감정과 공상 등에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공적 자의식은 자신을 타인의 관찰대상이 되는 사회적 객체로 보고 의복 착용, 태도 등에 관심을 갖는 특성을 의미한다(이부희, 1995). 자의식 측정은 Fenigstein, Scheier와 Buss(1975)가 개발한 자의식 척도 중 사적 자의식과 공적 자의식에 관한 14문항을 사용하였다. 공적·사적 자의식 각각 신뢰도는 $\alpha=.84$, $\alpha=.81$ 이었다.

자아존중감은 하나의 특별한 객체인 자아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Rosenberg, 1979). 자아존중감 측정은 Rosenberg(1979)의 10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alpha=.78$ 이었다.

2) 외모에 대한 태도

외모에 대한 태도는 신체적 외모의 중요성과 이상적인 사회기준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Heinberg 등(1995)이 개발한 문항(sociocultural attitude toward appearance)과 김광경, 이금실, 정미실(2001)과 조선명, 고애란(2001) 등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신뢰

도는 $\alpha=.85$ 이었다.

3) 의복태도

의복태도 문항은 성적매력성, 개성표현, 유행추구, 심미성, 정숙성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박혜선, 1995; 조선명, 1999; 고애란, 진병호, 심정은, 2000; 김광경, 이금실, 정미실, 2001)에서 사용한 문항을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하여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검사 결과, 각각 $\alpha=.72$, $\alpha=.75$, $\alpha=.68$, $\alpha=.74$, $\alpha=.67$ 로 나타났다.

성적매력성은 이성의 관심을 끌고 섹시하게 보이려는 의복사용을 의미한다(김광경, 이금실, 정미실, 2001). 개성표현은 다른 사람들의 의복과는 상관없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복을 착용하려는 태도이며, 유행추구는 의복의 유행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의복 선택 시 유행을 수용하는 의복태도로 정의하였다. 정숙성은 성적 흥미와 관련된 신체노출이나 신체에 밀착된 의복을 피하며,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의복을 착용하려는 의복태도로 정의하였다. 심미성은 의복을 통해 자신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의복태도로 정의하였다(박혜선, 1995).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for Windows Program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요 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외모에 대한 태도의 차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특성, 외모에 대한 태도, 의복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외모에 대한 태도가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외모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

고등학생의 외모에 대한 태도의 20문항에 대한 하위차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고유치 1을 기준으로 고려하였을 때 고유치 1 이상의 요인이 3개이었으므로 3개의 요인을 선택하였다. 문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요인과 문항 내용이 부합되지 않은 2개 문항을 제외한 18문항에 대한 제2차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요인 1은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의 외모와의 비교 내지는 그렇게 보이고자 하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이나 의견을 바꾸어 타인의 외모를 따르려는 태도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모에 대한 동조로 명명하였다. 요인 부하량은 .63이상이고 모두 6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4.75이고 설명력은 39.62%이며, 신뢰도는 $\alpha=.87$ 로 나타났다.

요인 2는 우리 사회에서 외모에 대하여 갖는 시각에 관한 내용과 매력적인 외모에 대한 실제적인 시각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가치로 명명하였다. 요인의 부하량은 .49이상이고 모두 6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1.61이고 설명력은 13.42%이며, 신뢰도는 $\alpha=.67$ 로 나타났다.

요인 3은 자신의 외모가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외모변화를 향상시키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지속적인 외모관리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모에 대한 욕구로 명명하였다. 요인의 부하량은 .48이상이고 모두 6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1.17이고 설명력은 9.81%이며, 신뢰도는 $\alpha=.51$ 로 나타났다.

2. 성별에 따른 심리적 특성, 외모에 대한 태도, 의복태도의 차이

성별에 따른 심리적 특성, 외모에 대한 태도, 의복태도의 차이를 t검증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심리적 특성 중 욕구에서 성취욕구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의복태도에서 개성표현, 정숙성, 심미성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욕구는 지배욕구($p<.05$)와 과시욕구($p<.01$)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의식의 경우 공적 자의식은 여고생이 남자 고등학생보다 높은 반면($p<.05$), 사적 자의식은 남학

표 2. 외모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

| 요 인 | 요인부하량 |
|---|-------|
| <요인 1> 외모에 대한 동조 | |
| 연예인들의 매력적인 외모를 보면 똑같이 하고 싶다. | .81 |
| 나는 잡지나 TV에 나오는 사람들의 외모와 내 외모를 비교하곤 한다. | .80 |
| 매력적인 외모를 지닌 사람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진다. | .79 |
| 멋있는 사람의 사진에 나오는 외모를 하고 싶다. | .74 |
| 나도 인기모델과 같은 외모이었으면 좋겠다. | .73 |
| 이성친구가 원하는 외모이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 .63 |
| 변량(%) = 39.62 고유치 = 4.75 $\alpha = .87$ | |
| <요인 2> 외모에 대한 가치 | |
| 오늘날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매력적인 외모는 매우 중요하다. | .85 |
|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외모관리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79 |
|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를수록 옷맵시가 난다'라고 여긴다. | .76 |
| 친구들 사이에서 멋지고 예쁘게 보일 필요가 있다. | .72 |
| 웁은 키가 크고 마른 모델들이 입어야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 .71 |
| 우리 사회에서 뚱뚱한 사람들보다는 날씬한 사람이 좋게 평가받는다. | .49 |
| 변량(%) = 13.42 고유치 = 1.61 $\alpha = .67$ | |
| <요인 3> 외모에 대한 욕구 | |
| 외모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 부모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 .73 |
|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도 외모관리를 하고 싶다. | .68 |
| 나는 외모변화에 대해 관심이 많다. | .67 |
| 나이가 들어도 외모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싶다. | .61 |
| 매력적인 외모를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 .56 |
| 매력적인 외모를 위해 어떤 고통도 감수할 수 있다. | .48 |
| 변량(%) = 9.81 고유치 = 1.17 $\alpha = .51$ | |

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p < .01$). 이것은 여 학생은 타인에게 외적으로 비추어지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경향이 높은 반면, 남학생은 자신의 내적인 사고나 감정 등 개인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양은주(1993)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적 자의식이 높게 나타난 데 비해, 이부희(1995)와 고에란과 김양진(1996)의 연구에서는 공적·사 적 자의식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심리적 특성 중 자아존중감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

(구정화, 1994; 심정은, 1997)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의복태도에서 성적매력성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p < .001$). 이와 같은 결과는 요즘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의 성적 매력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현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명희(1982)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적 매력성이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Creekmore(1974)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는 여학생일수록 의복을 타인의 시선을 끄는 데, 특히 이성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사용한다는 연구결과와 차이를

표 3. 성별에 따른 심리적 특성, 외모에 대한 태도, 의복태도의 차이

(n=489)

| 심리적 특성, 의복태도 | | 성별 | | t | |
|--------------|-----------|--------------|--------------|----------|--------|
| | | 남 (n=236) | 녀 (n=253) | | |
| 심리적 특성 | 욕구 | 성취욕구 | 4.09 | 4.02 | 1.31 |
| | | 지배욕구 | 3.19 | 3.07 | 2.02* |
| | | 과시욕구 | 3.73 | 3.55 | 3.02** |
| | 자의식 | 공적자의식 | 3.60 | 3.75 | -2.27* |
| | | 사적자의식 | 3.12 | 2.99 | 2.47** |
| | 자아존중감 | 3.41 | 3.32 | 1.54 | |
| 외모에 대한 태도 | 외모에 대한 가치 | 3.28 | 3.49 | -3.59*** | |
| | 외모에 대한 동조 | 3.08 | 2.94 | 1.77* | |
| | 외모에 대한 욕구 | 2.93 | 3.04 | -2.16* | |
| 의복 태도 | 성적매력성 | 2.97 | 2.57 | 6.60*** | |
| | 개성표현 | 2.91 | 3.00 | -1.36 | |
| | 유행추구 | 2.49 | 2.69 | -3.17** | |
| | 정숙성 | 3.40 | 3.43 | -0.69 | |
| | 심미성 | 3.24 | 3.30 | -1.03 | |

*p<.05, **p<.01, ***p<.001

보였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행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p<.01$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신의 신체와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체형을 강조하고 집단 및 타인의 인정과 수용을 위하여 유행의복을 선택, 구입한다고 한 심정은과 고애란(1997)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3. 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외모에 대한 태도가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특성과 외모에 대한 태도가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의복태도의 하위영역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그 종속변인에 작용하는 독립변인들을 대상으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의복태도의 성적매력성은 성취욕구(-), 과시욕구, 공적 자의식, 사적 자의식, 외모에 대한 가치(-), 외모에 대한 동조, 외모에 대한 욕구의 순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48.2%이었다. 성취욕구가 낮고, 과시욕구가 높으며, 공적 자의식과 사적 자의식이

높고, 외모에 대한 가치는 낮으며, 외모에 대한 동조와 외모에 대한 욕구가 높을수록 성적매력성이 높았다.

의복태도의 개성표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과시욕구, 공적 자의식, 사적 자의식, 자아존중감, 외모에 대한 동조(-)와 외모에 대한 욕구의 순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6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31.3%이었다. 즉 과시욕구, 공적·사적 자의식, 자아존중감과 외모에 대한 욕구가 높고, 외모에 대한 동조가 낮을수록 개성표현이 높게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 여학생은 의복에서 개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옷, 날씬하고 예쁘게 보일 수 있는 옷을 착용하고 중요시한다고 한 김광경, 이금실, 정미실(2001)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유행추구는 성취(-)·지배·과시욕구와 외모에 대한 욕구의 순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18.6%이었다. 즉 지배와 과시욕구는 높고, 성취욕구는 낮으며, 외모에 대한 욕구가 많을수록 유행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배욕구와 과시욕구가 높고 외모변화를 하고자 하는 외모에 대한 욕구가 높은 고등학생은 개방적이고 사교적인

표 4. 의복태도에 대한 심리적 특성과 외모에 대한 태도의 다중회귀분석

| 종속변인 | 독립변인 | beta | t | R2 | F |
|-------|-----------|-------|-----------|------|-----------|
| 성적매력성 | 성취욕구 | -.175 | -3.574*** | .482 | 49.546*** |
| | 과시욕구 | .403 | 8.062*** | | |
| | 공적 자의식 | .230 | 6.588*** | | |
| | 사적 자의식 | .127 | 2.858** | | |
| | 외모에 대한 가치 | -.106 | -2.470** | | |
| | 외모에 대한 동조 | .195 | 5.976*** | | |
| | 외모에 대한 욕구 | .285 | 5.355*** | | |
| 개성표현 | 과시욕구 | .251 | 4.229*** | .313 | 24.279*** |
| | 공적 자의식 | .119 | 2.862** | | |
| | 사적 자의식 | .138 | 2.611** | | |
| | 자아존중감 | .131 | 2.559** | | |
| | 외모에 대한 동조 | -.108 | -2.790** | | |
| | 외모에 대한 욕구 | .476 | 7.530*** | | |
| 유행추구 | 성취욕구 | -.212 | -3.397*** | .186 | 12.185*** |
| | 지배욕구 | .251 | 4.316*** | | |
| | 과시욕구 | .133 | 2.089* | | |
| | 외모에 대한 욕구 | .422 | 6.240*** | | |
| 정숙성 | 과시욕구 | -.145 | -2.629** | .051 | 2.861** |
| | 외모에 대한 가치 | .094 | 1.998* | | |
| | 외모에 대한 욕구 | -.141 | -2.397** | | |
| 심미성 | 과시욕구 | .268 | 5.254*** | .342 | 27.690*** |
| | 공적 자의식 | .236 | 6.617*** | | |
| | 자아존중감 | -.097 | -2.193* | | |
| | 외모에 대한 가치 | -.099 | -2.265* | | |
| | 외모에 대한 욕구 | .382 | 7.026*** | | |

*p<.05, **p<.01, ***p<.001

성적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유행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유행에 우호적인 집단일수록 외모나 의복의 외형적인 조건을 중요시한다고 한 최윤정과 김미숙(1999)의 연구와 어느 정도 일치하였다.

정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과시욕구(-), 외모에 대한 가치와 외모에 대한 욕구(-)의 순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3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5.1%이었다. 즉 과시욕구와 외모에 대한 욕구가 낮고, 외모에 대한 가치가 높을수록 정숙성이 높았다.

심미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과시욕구, 공적 자의식, 자아존중감(-), 외모에 대한 가치(-)와 외모에 대한 욕구의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개 변인을 통한 설명력은 34.2%이었다. 즉 과시욕구와 공적 자의식, 외모에 대한 욕구가 높고, 자아존중감과 외모에 대한 가치

가 낮을수록 심미성은 높았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고생의 경우 심미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한 김순구와 박정순(1990), 박성연, 이종미, 임숙자(2001)의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고등학생의 외모에 대한 태도가 의복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이 심리적 특성 중 욕구, 자의식, 자아존중감 순으로 영향을 주었다. 고애란, 진병호 그리고 심정은(2000)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의복행동에 가장 영향을 주는 심리적 변인으로 공적 자의식을 들었는데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심리적 특성 중 자아존중감은 의복태도에 많은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고등학생의 의복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 중 심리적 특성과 외모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심

리적 특성과 외모에 대한 태도는 의복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특히 외모에 대한 태도는 의복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발달과정 중 중요한 시기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특성과 외모에 대한 태도가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청소년기 의복행동을 이해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에 대한 태도는 외모에 대한 동조·가치·욕구의 3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리적 특성 중 욕구에서 성취욕구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의복태도에서 개성표현, 정숙성, 심미성을 제외한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욕구 중 지배욕구와 과시욕구, 자의식에서 사적 자의식, 의복태도에서 성적 매력성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의식의 공적 자의식은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고, 의복태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행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외모에 대한 태도가 의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의복태도의 하위영역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그 종속변인에 작용하는 독립변인들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등학생의 외모에 대한 태도가 의복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이 심리적 특성 중 욕구, 자의식, 자아존중감 순으로 영향을 주었다. 성취욕구가 낮고, 과시욕구가 높으며, 공적 자의식과 사적 자의식이 높고, 외모에 대한 가치는 낮으며, 외모에 대한 동조와 외모에 대한 욕구가 높을수록 의복태도의 성적 매력성이 높았다. 또한 과시욕구, 공적·사적 자의식, 자아존중감과 외모에 대한 욕구가 높고, 외모에 대한 동조가 낮을수록 개성표현이 높게 나타났다. 지배와 과시욕구는 높고, 성취욕구는 낮으며, 외모에 대한 욕구가 많을수록 유행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시욕구와 외모에 대한 욕구가 낮고, 외모에 대한 가치가 높을수록 정숙성이 높았

다. 과시욕구와 공적 자의식, 외모에 대한 욕구가 높고, 자아존중감과 외모에 대한 가치가 낮을수록 심미성은 높았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심리적 특성과 외모에 대한 태도는 의복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특히 외모에 대한 태도는 의복태도와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외모에 대한 태도의 측정도구가 표준화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과, 특정학교의 고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연령층을 더욱 확대하여 심리적 특성과 외모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의복태도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며, 외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을 폭넓게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주제어 : 심리적 특성, 외모에 대한 태도, 의복태도

참고문헌

- 강혜원(1999). 의상사회심리학. 서울: 교문사.
- 고애란, 김양진(199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아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0(4), 667~681.
- 고애란, 심정은(1997). 청소년기 여학생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의식과 신체태도 및 체중조절 행동의 영향연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논집*, 11, 15~29.
- 고애란, 진병호, 심정은(2000). 청소년기 여학생의 의복행동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연령·지역 차이와 심리적 특성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한국의류학회지*, 24(4), 475~486.
- 구정화(1994). 청소년의 자기평가에 관한 연구 -성별, 학교변인별, 가정변인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9, 95~113.
- 김경희(1996). 여고생의 유행선도력에 따른 구매 전 의사결정과정.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광경, 이금실, 정미실(2001). 다차원적 신체이미지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5(2), 358~365.

- 김순구, 박정순(1990). 자아존중과 의복행동간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4(4), 305~313.
- 김순구, 윤학자(1986).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남녀 고교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0(1), 1~8.
- 김양진, 강혜원(1996).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사회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16(2), 197~211.
- 김연수(1985). 청소년의 의복행동과 문제성향과의 관계 -서울, 경기도 지역 여고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희창(1998). 청소년기 여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또래집단 수용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문화자(1985). 여고생의 욕구와 의복행동간의 관계 연구 -부산시 여고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성연, 이종미, 임숙자(2001).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과 의생활·식생활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9(8), 1~18.
- 박혜선(1995). 의복 태도 변인들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6), 968~983.
- 백선영, 이선재(2000). 고교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관여 및 의복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1), 55~66.
- 송경자, 김재숙(1999). 신체이미지·신체왜곡 및 자아존중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태도적·지각적 신체이미지 측정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7(5), 68~79.
- 신영주(1996). 청소년의 자의식 및 역기능적 태도와 우울성 성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심소연, 강혜원(1983). 여고생의 의복행동과 과시 및 자율욕구와의 상관연구 -의복의 과시성, 유행, 교복자율화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7(2), 53~69.
- 심정은, 고애란(1997). 청소년기의 자의식 및 체중 조절행동과 의복행동과의 관련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8), 1334~1345.
- 양인숙(1997). 교사의 의복행동에 대한 여고생들의 선호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은주(1993). 자의식과 부정적 생활경험이 대학생의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오중은(1995). 신세대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윤미경(1997). 상품광고와 청소년의 구매행동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부희(1995). 남녀중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연구 - 자아중심성·자의식·신체만족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상희, 김현식, 손원교(1997). 남녀고등학생의 교복만족도, 의복관심도,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2), 383~395.
- 이명희(1982). 예의·정숙성과 심미성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명희, 이은실(2000).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의복의 규범적 동조 및 의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2), 245~256.
- 이부희, 고애란, 김양진(1996). 남녀 중고등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의복 행동과의 관계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4(5), 131~144.
- 이은실, 이명희(1998). 의복행동 및 의복태도 관련 변인에 관한 문헌고찰. *생활문화연구*, 12(1),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1~25.
- 이인자, 이경희, 신효정(2001). *의상심리*. 서울: 교문사.
- 이훈구 역(1983). *성격심리학*. (L.A. Hjelle & D.J. Ziegler. *Personality theories: Basic assumption research and applications*, 2nd ed.). 서울: 법문사.
- 전영신, 한명숙(1998). 여고생의 자아 이미지와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5), 80~92.
- 조선명, 고애란(2001).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이미지가 의복추구행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기 여학생의 연령 집단별 차이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5(7), 1227~1238.

- 차은정, 박혜선(2000). 여고생들의 상표선호에 대한 연구 -라이프스타일, 광고표현형식, 상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4(4), 487~497.
- 최윤정, 김미숙(1999). 유행 태도에 따른 여고생의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4), 111~126.
- 캐시, 토머스 F., 토머스 프루진스키 편, 임숙자, 이미현, 이승희, 신호정 역(2000). *바디이미지: 발전·일탈·변화*. 서울: 교문사.
- 황정규(1968). *욕구진단검사, 검사요령*. 서울: 코리아테스팅센터.
- Cash, T.F., Winstead, B.A. & Janda, L.H.(1986). body image survey report : the Great American shape-up. *Psychology Today*, 20, 30~44.
- Creekmore, A.M.(1974). *Clothing related to body satisfaction and perceived self* (Report No. 239). East Lansing, MI: Michigan State University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 Creekmore, A.M.(1980). Clothing and personal attractiveness of adolescents related to conformity to clothing mode, peer acceptance and leadership potential.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8(3), 203~215.
- Fenigstein, A., Scheier, M.F., & Buss, A.H.(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5, 522~527.
- Freeman, R.J.(1984). Reflections on beauty as it related to health in adolescent females. *Woman and Health*, 9(2-3), 29~45.
- Flügel, J.C.(1971). *The Psychology of Clothe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Inc.
- Heinberg, L.J., Thompson, J.K., & Stormer, S.M.(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1), 81~89.
- Horn, M.J. & Gural, L.M.(1981).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 Humphrey, C., Klaasen, M. & Creekmore, A.M.(1971). Clothing and self-concept of adolesce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4), 246~250.
- Hurlock, E.B.(1929). *The psychology of dress* (3rd ed.). New York Times Co. Arno Press.
- Hurlock, E.B.(1978). *Developmental Psychology* (4th ed.). New Delhi, Tata. McGrawhill, Book Co., Ltd.
- Kwon, Y.H.(1991). The influence of the perception of mode and self-consciousness on the selection of clothing.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9(4), 41~46.
- Kwon, Y-H, & Shim, S.(1999). A structural model for weight satisfaction, self-consciousness and women's use of clothing in mood enhancement.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7(4), 203~212.
- Kwon, Y.H., & Parham, E.S.(1994). Effects of state of fatness perception on weight conscious women's clothing practices. *Clothing Textiles Research Journal*, 12(4), 16~21.
- Lee, M.Y.(1997). *Relationship of body image acculturative stress, and self-esteem among korean female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Ohio State University.
- Lennon. S. J., Rudd, N.A., Sloan, B., & Kim, J.S.(1999).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self-esteem, and body image: Application of a model.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7(4), 191~202.
- MacGillivray, M.S., & Wilson, J.D.(1997). Clothing and appearance among early, middle and late adolescent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5(1), 43~49.
- McJimsey, H.T.(1973). *Art and fashion in clothing selection*, Ames, Iowa: The Iowa State University Press.
- Miller, F.G., Davis, L.L., & Rowold, K.L.(1982). Public self-consciousness, social anxiety and

- attitudes toward the use of clothing.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4), 363~368.
- Miller, K.A.(1997). Dress: Private and secret self-expression.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5(4), 223~234.
- Murray, H. A.(1934). *Explorations in Personality*. pp. 34~24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og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Rudd, N.A., & Lennon. S.J.(2000). Body image and appearance-management behavior in college woman.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8(3), 152~162.
- Rudd, N.A., & Lennon. S.J.(2001). Body image: Linking aesthetics and social psychology of appearance.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9(3), 120~133.
- Ryan, M.S.(1966).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Solomin, M.R., & Schopler, J.(1982). Self-consciousness and clothing. *Personality & Psychology Bulletin*, 8(3), 508~514.
- Thompson, J.K., & Heinberg, L.J.(1999). The media's influence on body image disturbance and eating disorders: We've reviled them, now can we rehabilitate them? *Journal of Social Issues*, 55(2), 339~353.

(2003. 3. 10 접수; 2003. 4. 4 채택)